

2026년 9월 1일

Hana FX Daily Letter

여전히 시장에 남겨진 물음표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중등 리스크로 인한 위험회피 심리와 저가 매수세에 상방 압력**
daily range 예상: 1,364~1,375원

■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유입되었음. 수급 측면에서도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환율 상방 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다만, 베네통 미 재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어 연준의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달러 흐름은 제한되는 모습. 여기에,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세가 지속될 경우 상방 압력을 상쇄하며 소폭 반등에 그칠 전망

■ **전일 동향** : 31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11.5원 내린 1,368.0원 마감. 장 초반, 워시 연준 의장의 매파적 연설로 인한 강달러에 1,380원선까지 상승. 그러나 중공업체 수주 소식과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으로 큰 폭 하락, 1,368.6원에 주간 거래를 마침. 이어진 야간장에서는 중등 리스크에도 워시 의장의 매파적 발언 영향이 희석되며 강달러가 일부 조정을 받자 1,360원대 후반에서 등락하다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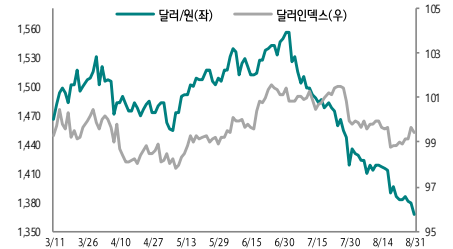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요구 발언 등 연준이 실제 금리인상에 나설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시장 경계감 속에 달러 가치가 하락
- (유로-달러) 독일의 8월 CPI 상승률이 전년대비 2.9%로 확대되면서 ECB의 추가 긴축 전망이 강화되었고, 이에 유로화는 강세로 전환
- (달러-엔) 일본 외환당국이 금리인상 등 엔화 강세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베네통 미 재무장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엔화 약세 흐름이 다소 주춤해짐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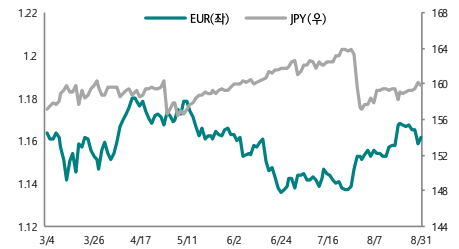
- 최근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워시 연준 의장이 명확한 매파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음. 워시 의장은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는 PCE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목표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음. 현재 경제는 강하고 완전 고용에 가까운 반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 특히 기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향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음. 또한, 포워드 가이드의 역할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책 논의 내용을 과도하게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음. 연설 직후 시장에서는 연준 긴축 가능성을 반영하여 미 단기금리가 상승하고 달러는 강세를 보였음. 최근 발표된 PCE물가지수(헤드라인 3.7%, 근원 3.3%)를 감안할 때, 연준이 이중책무 중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판단됨. 다만, 이후 금리와 달러가 상승폭을 일부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음. 이는 워시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긴축 조치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는 시장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따라서 9월 FOMC 전까지 연준 금리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원화 환율의 주요 상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380.0	1,380.5	1,365.9	1,367.7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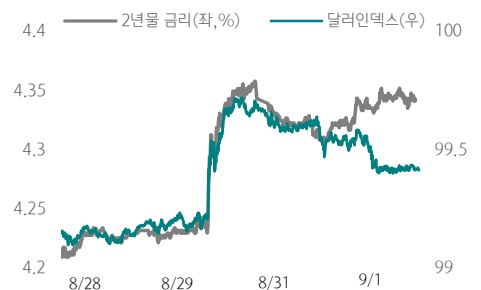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617	159.74	6.7182
전일대비	+0.0033	-0.36	-0.0127
재정환율	1,589.25	856.41	203.63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8:00	유로존 8월 CPI(YoY)	3.3%	2.9%
23:00	미국 8월 ISM 제조업 PMI	55.2	55.6
	미국 7월 JOLTs 구인 건수	7313k	7359k

미 단기금리 및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Bloomberg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